

「2017 함께하는, 학교건축」  
**한국교육시설학회 제8회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 심사평 총평**  
 The Whole Process of the 8rd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황 희 준 / 한양대 교수  
 Whang, Heejoon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hjwhang@hanyang.ac.kr

올해 제시된 한국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의 주제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미래 학교 만들기”다. 이는 미래세대의 교육환경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 출발한다. 공교육을 둘러싼 커다란 변화는 학교라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학교는 더 이상 단순 지식 전달의 장을 넘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와 지역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개학생들의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며, 지역과 소통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면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가진 환경이 미래학교가 가진 주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중심이 되는 미래학교란 개념은 과거 학생중심의 교육에만 초점이 맞추어 계획되었던 학교공간이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겠으나, 이번 공모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 가지 소주제를 던져줌으로써 각 주제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안토록 유도하였다. 그 첫째는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란 주제로, 학교복합화에 대한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세대 간 교류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개념의 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진화하는 학교’로서,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 환경에 부합치 않는 노후한 학교,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 또는 역으로 정주환경이 좋지 않은 노후된 지역

에 위치하는 학교를 지역의 공공기능을 보완하는 공간들로 재탄생시켜 학교와 마을이 융합할 수 있는 유기체 개념의 학교계획을 말하며, 이는 도시재생 개념에서 학교공간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안전한 학교’는 재해나 재난 발생 시 학교가 지역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피난장소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방재, 위생, 친환경에너지 개념 등을 도입한 지역피난처 역할로서의 학교계획에 대한 제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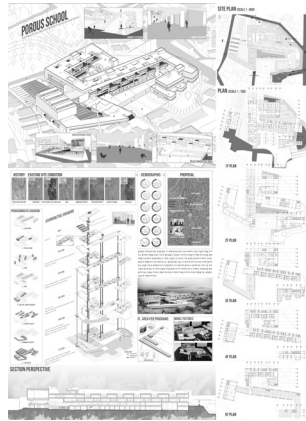
대부분의 공모전 심사에서 그러하듯이 심사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설계자의 건축적 해석이 얼마나 창의적이며, 완성도가 있는 가였다. 무엇보다 학교공간 및 역할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설계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작품에 심사자들을 보다 주목했다. 이는 기존의 제도화된(institutionalized) 학교공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지역 중심시설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미래 학교공간의 개념적 대안을 찾고자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개념을 건축적 언어로 전환하고 물리적 구축성을 완성도 높게 계획하며, 설계자의 계획의도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하는 능력 등이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대상에 선정된 ‘POROUS SCHOOL’은 작품명에서 디자인의 특성과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주었으며, 그러한 개념이 공간과 형태에 잘 드러난 우수한 작품이었다. porous의 의미가 ‘구석구석 스며들다’ 이듯이 지역의 역사적, 사

회적, 상업적 중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공간에 주변 도시지역의 역사적 흐름과 상업공간들이 적절히 스며들 수 있도록 매스의 배치와 공간의 구성을 파노라마하게 전개 시키고 있었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학교공간 깊숙이 관입된 주진입부 공간은 그 주변 도시지역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에워싸는 공간은 주민편의 시설과 도시공간을 적절히 배치함과 동시에 학교 교유의 기능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서 학교는 지역중심지이며 도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교실과 교실 사이에 외부 테크공간을 두었고, 교실동 사이에는 흥미롭게 디자인된 외부 중정공간을 두어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열린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참신하며, 형태적으로 드러난 다공성의 입면은 porous라는 주제어를 적절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개념과 디자인이 일치하며, 계획 및 패널의 완성도 또한 뛰어난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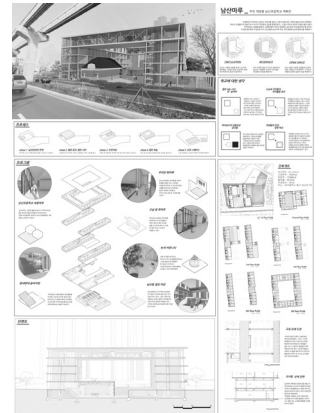
최우수상에 선정된 '구룡마을 지기'는 어렵고 낙후된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학교공간이 '오래된 막역한 친구'와 같이 그들을 감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따뜻한 작품이었다. 설계자도 적시하였듯이 구룡마을은 재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강남의 또 다른 아파트촌으로 변화할 것이다. 설계자는 가장 험악한 지역에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으며, 그 역할을 학교공간에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함께 배우고, 자립갱생 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설계적 제안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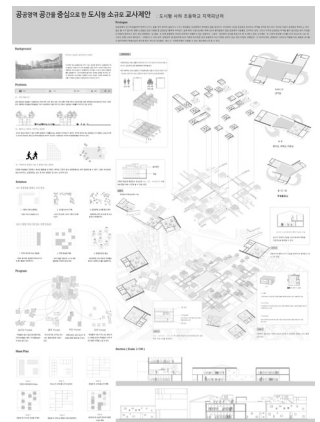
이는 또한 건축가의 사회적 기여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다. 본 작품의 아쉬움이라면 계획안이 보여주는 배치, 입면, 매스 등이 구룡마을의 정체성과 괴리된 느낌이 강하며, 현재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텍스처를 지배

하는 점이다. 물론 현재 구룡마을의 형태적 원형을 찾는 것이 어렵고,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나, 보다 광의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을 논하고 싶은 작품이라면 단순히 마을의 주거지역을 피하고, 보존지역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이에 부합하는 배치 및 공간형태가 도출되었다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우수상에 선정된 '남산마루'는 주민개방형 초등학교를 계획한 안이다. 주민개방형 학교에 대한 설계제안은 과거부터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어 더 이상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힘든 면이 있다. 이 작품 또한 기존 개방형 학교에 대한 안들 보다 독창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개방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루의 개념을 다양한 공간적 차원으로 전개시켜 위요성을 가진 열린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 되었다. 열린마당(주민 커뮤니티 공간) > 대청마루(실내외의 전이공간이자 학생들의 내부 놀이터) > 텃마루(짧은 휴식시간 동안 외부로 나가기 힘든 학생들의 휴식처이자 놀이공간) > 쪽마루(친구와 함께 어깨동무 할 수 있는 공간)로 이어지는 공간적 전이가 전체 학교공간의 계획에 적절히 녹아들어가 있으며, 중정형태의 과감한 열린공간이 마을 주민들을 받아들일도록 계획한 대담성이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었다.



우수상 '공공영역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 소규모 교사제안'은 기존의 교사동 매스와 운동장으로 구분되었던 전형적인 학교배치에서 벗어나 거대한 매스의 교사동을 과감하게 분절시켜 그리드로 구획된 넓은 운동장 공간에 분절된 유닛들을 펼쳐놓고, 그 사이 포켓공간을 두어 외부공간과 교실공간이 긴밀히 상호작용토록 계획한 안이다. 보다 흥미로운 제안은, 물론 실용성에 의문은 가나,



그리드 공간에 레일을 깔아 유닛공간들이 용도에 따라 서로 다양한 공간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계획한 점이다.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가변형 공간구성을 위해 실내공간에 적용된 사례는 있으나 단일 건물 유닛에 이를 적용한 점은 매우 의욕적(?)인 제안 이었다. 또한 지역 재난시 각 학급공간이 피난 주민들을 위한 모듈화된 공간으로 전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삽입하고 있다. 이 설계안은 유용성을 떠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 되었다. 다만 많은 아이디어들을 뷔페식으로 깔아놓다 보니 전체 개념이 힘 있고, 일관성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적 완성도 또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본 계획을 위해 전제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의 무용성 문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이슈인 것 같다. 설계자의 판단과 같이 학과 공부에 올인하는 요즘의 교육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학교 운동장의 활용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이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 마음껏 뛰고, 공을 차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은 학과 공부에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며, 이에 대한 공간적 고민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들을 분산 배치하고 그 사이에 외부공간을 공원과 같이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배회할 수 있는 도심의 쉼터공간,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심지 공원을 계획 하였다. 전체적인 개념은 참신하였으나 계획 및 디자인의 완성도가 결여된 점이 아쉬운 안 이었다.

우수상 'DAY-CARE SCHOOL'은 도심지 폐교를 활용한 노유자 교육 및 요양시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공공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학교 활용성을 고민한 안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 노인세대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장이자,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요양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폐교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학교가 차지하는 넓은 부지의 이점을 살려 체력 단련실 등의 추가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주민공동체 시설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에서 주목한 점은 기존 학교공간을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재활용 하면서 학교부지가 도심지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 이었다. 학교 공간은 도심지에서 가장 넓은 대지를 확보한 건축물 이다. 이 안은 기존 넓은 학교 운동장 공간을 활용해 적절히 프로그램

